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연중 제16주일

제2156호

2023년 7월 30일(가해)



오늘의 미사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마태 13,44)”

▶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 제1독서: 열왕기 상 3,5-6 7.7-12

▶ 화답송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제2독서: 로마서 8,28-3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13,44-52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이명노(비오)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8월 봉성체 안내

8월 봉성체는 8월 17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7월 30일(일)	오후 4시
8월 06일(일)	오후 4시
8월 13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3) 사무실 공지사항

▶ 홈페이지 주소 변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웹사이트의 주소가 기존

<https://honoluluccc.org>에서

<https://standrewkimhawaii.org>로

바뀝니다.

기존 주소로 접속하셔도 새 주소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기존의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웹사이트

<http://hi.djcatholic.or.kr>에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있으신 분께서는 새로 회원가입을 하지 마시고 바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목위원회

1) 영상 교육 상영 안내(교육분과)

7월 30일(일)	“성경 통독: 창세기 3부”
8월 06일(일)	“성경 통독: 탈출기 1부”

- 시간은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글학교, 주일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의미 있는 꿈과 시간이 될 주일학교 및 한글학교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교사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중한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에 참여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UNDAY SCHOOL 연락처: 류영미 막달레나 교감
(808-398-1275)



3)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50주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신자 여러분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대상: 전신자
- 시간: 7월 29일, 30일

모든 미사 공지 사항 후

- 발표자 : 조유호 빈첸시오 준비위원장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광고문의
사무실 : 808-422-1010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1) 꾸리아 모임

일시: 7월 30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2) 성령 기도회 모임

일시: 8월 5일(토) 7시 미사 후

장소: 성당

3) 상임위원회 모임

일시: 8월 13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성당



재정위원회

-2차헌금 안내

Catholic Charities Hawaii을 위한 2차헌금:
8/5~6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7월22/23일):\$5,897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2,601	\$480	1,015	\$1,801

제대 제작을 위한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최니콜 자매님, 최덕민 바오로 형제님,
김진희 사비나 자매님, 이영미 마리아 자매님,
김춘자 엠마 자매님, 김희정 올리안나 자매님

알아봅시다

믿음의 순종(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

“믿음의 순종”(로마 16.26)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순종의 모범으로, 동정 마리아께서는 순종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으로 제시한다.

마리아-“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

동정 마리아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신 신앙의 모범이시다. 마리아께서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루카 1.37)는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주님의 탄생 예고와 약속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하고 동의하신다. 일생 동안, 극도의 시련, 곧 아드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에서까지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순수한 믿음을 실현한 분으로 공경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코린 13,12) 하느님을 알 뿐이다. 주님께서 신앙을 비취 주신다 해도 우리의 신앙은 종종 어둠 속을 지나거나 시련에 처할 수 있다. 그럴 때 신앙의 증인들 곧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믿은 아브라함, 당신 아드님의 무덤과 수난을 함께한 동정 마리아를 바라보아야 한다.

식소영 유자 NMLS# 396147
Cross Country Mortgage
Cel: (808) 798-5100
Email: Shari.shim@myccmortgage.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 뷔티지 커피
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라리보 신부의 하와이 판공

‘아드리안 라리보’는 ‘원주교님’이라는 호칭으로 더 익숙하다. 대전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1964년 3월 4일까지 소임을 하였으니, 나이 든 교우들 중에는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이가 많다. 말씀은 좀 딱딱하게 하지만 속정은 많았다는 회상을 여러 사람에게서 전해 들곤 했다.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사진이나 전언으로 만나는 라리보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딱 그 정도였다.

신부 라리보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최근에 이르러서다. 하와이의 한인 천주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와이 이민의 역사를 엿보게 되었다. 어깨너머로나마 가진 관심은 어느새 옛 교우 이민자들에 대한 연민과 존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구한말의 가난한 이민자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유민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었을 즈음 라리보라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다.

라리보 신부는 부산으로 출발했다. 그가 한국인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기 위해 2주간 호놀룰루에서 보낸 후 ...
(『드망즈 주교 일기』 1923년 10월 7일)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7천여 명의 한국인, 이른바 대한제국의 첫 번째 이민자들 가운데는 착하고 열심한 교우들도 있었다. 먼 이국땅의 고단한 사탕수수밭에서도 그들은 천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는 않더라도 현지의 사제를 찾아 신앙의 감증을 해소하려 발버둥 쳤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 고국까지 이른 것일까. 라리보 신부가 그들을 찾아온 건 기적이거나 다름없었다. 1923년 11월,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하와이에서 3일 동안 머물며 한국인 교우들에게 성사를 베풀었다.

늘 그랬듯이 라리보 신부는 무뚝뚝한 말투에 살갑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만난 사람마다 말했던 것처럼 속 깊은 위로와 훈훈한 정을 넉넉히 나누지 않았을까. 우리말로 고해를 하고, 그간에 다하지 못한 그리움의 회포를 풀어낸 아름다운 판공성사였을 게 틀림없다.

얼마 전 방문했던 하와이에는 한인들을 위한 소박한 성당에 여전히 열성적인 교우들이 모여왔다. 라리보 신부의 방문 날처럼 우리말로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마음으로 천주를 찬미했다. 미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나의 가슴은 100년의 세월을 자꾸 넘나들었다. 문득 지그시 감은 눈 너머로 남은 저고리를 걸친 옛 교우들이 라리보와 함께 어울려 있었다. 천상과 지상의 간격도 무색하기만 했다. 우리의 찬미가 하늘에 이르는 동안, 라리보와 천상의 교우들 또한 추억으로 가득한 하와이를 향해 축복의 노래로 화답하지 않았을까.

“내포교회사 연구소 소식지 中” 김성태 요셉 신부

본당 설립 50주년 목주기도 봉헌

7월 23일 까지 목주기도 봉헌은
총 168,929단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선 / 599-9810, 592-5011
묘지매매 묘지: Hawaiian Memorial Park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이계옥 카타리나 / 808-222-0326

SAS Ala Moana 사스 공인 딜러 김 퀴리노 / 955-9500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해피약국 처방약, 한국약, 무료배달 김 퀴리노 / 955-9500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